

# 五藏五府에서 三焦를 形成하여 五藏六府가 되는 藏府의 發生學的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sup>1</sup>  
김경신<sup>1</sup> · 이태경<sup>1</sup> · 강정수<sup>1</sup> · 김병수<sup>1</sup> \*

## Embriological study of Viscera and Bowels on the view: Viscera and Bowels form Triple energizers to be five-viscera and six-bowels

Kim Kyoung-shin<sup>1</sup> · Lee Tae-kyoung<sup>1</sup> · Kang Jung-soo<sup>1</sup> · Kim Byoung-soo<sup>1</sup> \*  
<sup>1</sup>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agu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formative procedure of five-viscera has been explained for the restriction[相克; 己勝] and the reverse restriction[相侮, 勝己] in five phase theory on the medical literatures from ancient times. In the formative procedure of five-viscera, it would seem that two theories are mutually contradictory. But this problem is solved in the view: As the upward, downward movement and the circulation progress, five-viscera and five-bowels develop. In brief on the formative procedure of human viscera and bowels, first, the circulation of five-viscera and five-bowels forms three phase of upper-middle-lower(fire-earth-water), and these phases generate Triple energizers[Samcho, 三焦], consequently it is to be five-viscera and six-bowels, to be formed 'Meridian and collateral[Gyeongnak, 經絡]' in that order. The triple energizers is situated in middle stage of formation of 'Vicera' and 'Meridian and collateral' on developing stage. It would be thought that Triple energizer meridian[Susoyangsamchogyong, 手少陽三焦經] is formed in procedure of Meridian and collateral after formation of upper-middle-lower of the triple energizers.

**Key Words** : fetus, Jangbu, Samcho(三焦), five-Jang, five-element, embryo

### I. 緒論

모든 만물에는 생성이 존재하고, 이에 모든 학문

에는 발생이나 기원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가 존재한다.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에도 '발생학'이라는 분야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도 존재의 '윤행 원리' 이전에 '생성'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문헌들이 『황제내경』 이후에 있었으며, 김완희는 한방생리학의 논리를 펼칠 때 발생학적 요소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sup>1)</sup>. 최근에 우주생성과 태아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bsoo25@dju.ac.kr, Tel : 042-280-2616  
접수일(2009년 10월 13일), 수정일(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발생의 상관관계를 논한 논문<sup>2)</sup>도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 한의학에서 현대 서양의학의 발생학과 견줄 만한 한방발생학이라 지칭할 수 있는 정립된 이론이나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인체 생리기전의 근원이 되는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태아 발생에 관한 역대 문헌을 살펴보면 장부의 발생을 오행 순서로 풀어내고 있는데 주로 '己勝(相剋)'인 경우와 '勝己(相侮)'인 경우로 대별된다<sup>3)</sup>. 이 논리들이 상충되어서 상호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에<sup>4)</sup> 인체발생에 대한 다양한 기전을 한의학적 및 상수역학적으로 고증하고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발생학적으로 장부와 경락은 三焦를 통해 연결됨을 보여주는 문헌<sup>5)</sup>이 중요서적<sup>6)</sup>에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五行 己勝(相剋)과 勝己(相侮)로 상충되는 장부발생 이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5장5부에서 三焦를 형성하여 5장6부가 되는 장부의 발생학적 형성 단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本論

- 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pp.108-112.
- 2) 김병수, 강정수. 宇宙生成과 胎兒發生의 相關關係에 對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9. (19). pp.85-103.
- 3) 본 논문에서는 相剋과 相侮라는 명칭이 五行剋制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五藏發生에 적용함에 章潢의 『臟腑始生總論』에서 “其次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以生其勝己者 腎屬水 故五臟由是爲陰 其次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胃 胃生膀胱 膀胱生三焦 以生其己勝者 小腸屬火 六腑由是爲陽”라 하여 相剋의 모습을 己勝으로 相侮의 모습을 勝己로 사용한 것을 借用하여 藏腑生成에서 相剋은 己勝으로 相侮는 勝己로 표현하겠음.
- 4) 역대 문헌을 종합하여 보면, 장부의 생성에 대하여 五行相剋의 순서로 생성되는 설명과, 五行相侮의 순서로 생성되는 설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脾藏을 예로 들면, <四明宋氏女科秘書>에는 “有肝然後生脾”이라 하여 오행적으로 木剋土의 모습을, 章潢 <圖書編>에는 “其次腎生脾”이라 하여 水侮土의 모습을 보인다. 같은 장부의 생성에 대한 이러한 문헌적 차이는 모순이라 볼 수도 있다.
- 5) 章潢. 圖書集成醫部全錄(五).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58-59.
- 6) 『古今醫鑑』과 『東醫寶鑑』에 동일한 문헌에 기재되고 있다.

## 1. 韓醫學의 人體發生學

인체의 운행 이전에 생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역대 문헌들은 부인과 또는 소아과 영역에 주로 제시되었는데, 인체의 발생과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인체의 발생에 대한 최초의 서술은 『黃帝內經』에서 시작하고 있다. 『內經』은 철학적이면서 원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만 비교적 소략한 감이 있다<sup>7)</sup>. 隋唐代에 이르러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서 月別로 상세히 胎兒의 成長과정을 처음으로 기술하였는데,<sup>8)</sup> 胎兒의 四肢 口鼻 毛髮 등의 형성과 藏腑의 生成 또는 모체의 養胎經絡을 五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즉, 4월에는 水精을 받고, 5월에는 火精을, 6월에는 金精을 받아 五行의 相剋順으로 五精을 받고, 1월부터 肝經이 養胎를 시작해서 木火土金水 相生順으로 모체의 經絡이 양태하는 등 오행의 변화를 기준으로 발생학을 설명하였다. 이후 많은 서적에서 巢元方の 문헌을 재인용하고 있다.

宋代 劉昉의 『幼幼新書』는 中國에서 가장 방대한 小兒全書<sup>9)</sup>로 당시 구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섭렵하였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부한 月別發生說과 臟腑生成順序가 존재하는데,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학설도 혼재되어 있다. 劉昉의 학설 중 勝己順으로 五藏이 생성된다는 자료와 化氣五行(己勝) 순서로 五藏이 생성됨을 보인 자료가 있어 서로 다른 설명을 보여주었다. 후에 陳自明의 『婦人良方大全』의 부록으로 있는 『四明宋氏女科秘書』<sup>10)</sup>에는 劉昉의 化氣五行(己勝)의 생성순서와 『諸病源候論』의 四月부터 水火金木土(己勝)로 순행하는 養胎順序를 혼합한 형태를 보여준다.

明代에 와서, 龔信的 『古今醫鑑』에 기재된 장부경락발생은 章潢과 許浚이 인용해서 더욱 유명해

- 7)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9, 168.
- 8)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438-441.
- 9) 洪元植 精校. 前揭書(中國醫學史). p.172.
- 10) 宋林阜. 四明宋氏女科秘書(婦人良方大全附錄).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pp.8-11.

졌다. 五藏은 勝己順으로 발생하고, 六府는 己勝順으로 발생한 뒤, 奇經八脈이 형성되고 다시 12正經이 생성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는데<sup>11)</sup>, 이들에 서 인체발생은 장부발생과 경락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적 후대에 정리된 龔信의 주장을 근거로 藏府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經絡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여러 발생관련 문헌을 고찰해 볼 때 특이한 사항은 五藏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든 문헌이 五行의 勝(剋)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己勝(相剋)' 또는 '勝己(相侮)'로 설명하는데, 결국 이 둘은 운행의 순서만 바뀔 뿐 相生이 아닌 '剋 關係'로서 五藏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五藏이 발생할 때는 상극관계로 진행된다는 것이 여러 발생관련 문헌들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sup>12)</sup>.

## 2. 藏府 生成의 2가지

한의학의 태아발생학에 대한 문헌들을 정리해 보면 五藏의 생성은 '己勝順(相剋)'과 '勝己順(相侮)'으로 대별된다<sup>13)</sup>.

### 1) '己勝順'의 藏府生成

己勝 이론<sup>14)</sup>의 효시는 『諸病源候論』<sup>15)</sup>이다. 經絡養胎說에 의하면 “四月 始受水精 以成血脉 五月 始受火精 以成其氣 六月 始受金精 以成其筋 七

月 始受木精 以成其骨 八月 始受土精 以成膚革 九月 始受石精 以成皮毛...”라고 하여서 水精, 火精, 金精, 木精, 土精의 순서로 태아가 형성된다. 이는 五行의 相剋 순서이다. 인용 내용이 유사한 『備急千金要方』도 동일하다. 이후에 劉昉<sup>16)</sup>의 『幼幼新書』는 化氣五行으로 설명한 장부생성을 서술하였는데, 壬丁合, 丙辛合, 庚乙合, 甲己合, 戊癸合으로 이루어진 순서 역시 水火金木土로 己勝으로 오장을 생한다(표 1.). 이후에 『四明宋氏女科秘書』<sup>17)</sup>에서는 劉昉의 化氣五行生成說을 인용한 다음 巢氏의 經絡養胎說의 五精이 生成됨을 기술하여 두 가지 논리를 절충하였다. 이는 水火金木土의 五行己勝을 두번 반복한 결과가 된다(표 2.). 또한 趙獻可<sup>18)</sup>도 처음에 命門이 생한 然後에 心, 肺, 腎을 생한다고 하였으나 化氣五行生成說인 “命門→心→肺→肝→脾→腎”의 生成順序에 포함이 되므로 '己勝順'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諸病源候論』은 水精, 火精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장부생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諸家의 논의들은 劉昉의 化氣五行論을 주로 인용한 논의로 己勝順으로 장부가 생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표 1, 2.). 이렇게 己勝順을 정리해보면 五藏과 五體를 위주로 설명하며 六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六府의 생성은 五藏 또는 五體의 발생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 2) '勝己順'의 藏府生成

장부생성의 勝己順도 劉昉의 『幼幼新書』에서 '새로운 十月養胎說'<sup>19)</sup>에 처음 보이나 그 흔적은 미완성에 가깝다. 그는 “肝 → 膽 → 肺 → 心 → 腎 → 脾 → 筋骨 → 形神 → 血脉”의 順으로 生成이 된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木侮金 金侮火 火侮水 水侮土로서 己勝(相剋)의 역순인 勝己順(相侮)으로 臟腑가 發生함을 보여준다.

11) 이 외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주제에 필요한 중요 부분은 대략 언급하였다.

12) 사물이 에너지에서 물질로 형성될 때는 상생보다는 상극 법을 통해 형성이 된다. 역학에서 '金火交易'을 통한 물질의 형성은 이런 것을 말한다.

13) 본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역대 장부발생의 2가지 학설을 우선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본장은 필자의 이전 논문의 고찰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보충하였다. 보충내용은 相剋을 己勝으로 相侮를 勝己로 표현을 바꾼 것 외에도 논문 작성 후 추가적으로 발견된 문헌적 내용을 근거로 논리를 보충 설명하였다.

김병수, 강정수. 宇宙生成과 胎兒發生의 相關關係에 對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9. 19 pp.85-103.

14) 본 논문에서 '己勝'은 장부생성에서 오행적인 '상극'을 표현한 것이다.

15)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中國醫學大系 2卷;四庫全書 734冊).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6. p.842.

16)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20-21.

17) 宋林阜. 四明宋氏女科秘書(婦人良方大全附錄).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1975. pp.8-11.

18)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

19)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 20-51.

十干	壬	→	丙(丁)	→	庚(辛)	→	甲(乙)	→	戊(己)	→	壬(癸)
五藏	命門		心		肺		肝		脾		腎
五體			血		皮毛		筋		肉		骨髓
五行	水	→	火	→	金	→	木	→	土	→	水

표 1. 劉昉의 化氣五行으로 인한 장부생성

十干	壬	丙(丁)	庚(辛)	甲(乙)	戊(己)	壬(癸)	水精	火精	金精	木精	土精
五藏	命門	心	肺	肝	脾	腎	→	→	→	→	→
五體		血	皮毛	筋爪	肌肉	骨髓	血脈	成氣	成筋	成骨	成膚革皮毛
五行	水	火	金	木	土	水	水	火	金	木	土

표 2. 『四明宋氏女科秘書』의 장부생성

	五藏 六府 經絡 生成順序										備考
五藏生成	腎 → 脾 → 肝 → 肺 → 心						「五藏은 勝己順」				先生右腎男 先生左腎女
六府生成	小腸 → 大腸 → 膽 → 胃 → 膀胱 → 三焦						「六府는 己勝順」				心生小腸
經絡, 筋骨 生成	奇經八脈 → 十二正經 → 十二絡脈 → 一百八十系絡 → 一百八十纏絡 → 三萬四千孫絡 → 三百六十五骨節 → 三百六十五大穴 → 八萬四千毛竅 → 耳目口鼻四肢百骸之身皆備										三焦生八脈

표 3. 『古今醫鑑』의 오장, 육부, 경락 생성

이 후 장부생성에 대한 논의는 明代에 진일보된 내용을 가진 자료가 등장한다. 章潢의 圖書編<sup>20)</sup>과 龔信的 『古今醫鑑』<sup>21)</sup>에는 三月에 이르러 右腎이 먼저 生成되던 男子로, 左腎이 먼저 生成되면 女子

20) 章潢, 圖書集成醫部全錄(五),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58-59.

臟腑始生總論

夫人之有生也 稟天地之陰陽 假父母之精血 交感凝結以爲胞胎也 乾道成男 坤道成女 ... 故一月之孕 有白露之稱 二月之胚 有桃花之譬 及其三月 先生右腎 則爲男 陰包陽也 先生左腎 則爲女 陽包陰也 其次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以生其勝己者 腎屬水 故五臟由是爲陰 其次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胃 胃生膀胱 膀胱生三焦 以生其己勝者 小腸屬火 六腑由是爲陽 其次三焦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十二經生十二絡 十二絡生一百八十系絡 系絡生一百八十纏絡 纏絡生三萬四千孫絡 孫絡生三百六十五骨節 骨節生三百六十五大穴 大穴生八萬四千毛竅 則耳目口鼻四肢百骸之身皆備矣 所謂四月形像具 五月筋骨成 六月毛髮生 正謂此也 至七月則遊其魂而能動左手 八月遊其魄而能動右手 九月轉身 十月滿足 .....

21) 龔信 纂輯, 古今醫鑑(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33.

로 구분이 되면서 “腎→脾→肝→肺→心”의 勝己順으로 五藏이 생하고 다음 心生小腸을 시작으로 “小腸→大腸→膽→胃→膀胱→三焦”의 己勝順으로 六府가 生成됨을 설명하였다. 龔信的 논의는 己勝順과 勝己順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며 이후 三焦를 통해 經絡이 생성됨을 주장하고 있다(표 3.). 또한 이 문장은 『東醫寶鑑』<sup>22)</sup>에도 그대로 기재되었다<sup>23)</sup>.

장부 생성에서 龔信的 說은 『東醫寶鑑』에 인용될 정도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선 주장인 五藏 생성이 化氣五行을 이용한 己勝順으로 전개된다는 논리와 상호 위배되어 보이며, 五藏은 勝己, 六府는 己勝인 이유를 설명한 자료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藏과 府를 나누고 勝己와 己勝

22)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史, 1999. p.1659.

23) 필자가 당시 논문 작성시 먼저 찾은 것은 『醫部全錄』에 나온 章潢의 說이었다. 그러나 章潢의 圖書編은 1616년 발간으로 나오고, 『古今醫鑑』은 1577년에 초간본이 나온 것으로 봐서 章潢 보다 龔信이 앞선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을 나누어 제시한 龔信의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 矛盾의 合一

태아 발생에 대한 역대 문헌을 살펴보면 어떤 문헌은 월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문헌은 월별 구분이 없는 문헌도 있다. 龔信의 문헌을 보면 1,2월은 기존 문헌을 인용하고, 장부의 발생은 3월부터 시작해서 4월을 거쳐 형체가 이루어진다고 한 뒤 5월, 6월, 7월 등은 다시 기존 문헌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행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들이 현실에 부합되면서 논리가 정연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락양태설로 유명한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을 보면 4월에 태아의 '六府가 順成'하여 手少陽三焦經이 양태한다는 구절이 나온다<sup>24)</sup>. 즉 龔信은 기본적인 巢元方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五藏과 六府의 생성에 대해 최소한 시기적으로는 현대과학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인 서술을 하였다. 이 논리대로 보면 장부가 먼저 발생을 한 다음에 경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장부와 경락의 연결고리는 三焦라고 보인다.

다음은 五藏의 발생이 己勝順이나 勝己順이나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運動의 反復(5장5부)

東洋學에서 人體의 發生은 宇宙萬物의 發生과 이론적으로 동일한 요소를 갖고 있다<sup>25)</sup>. 老子는 『道德經』<sup>26)</sup>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하여 一元의 氣에서 二인 陰氣와 陽氣가 生하였고, 여기에 다시 和氣가 생기어 三氣의 和습으로 말미암아 萬物이 生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周易』<sup>27)</sup>에서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 하여 萬物은 太極에서 兩儀, 四象, 八卦로 分化하는 二分法의 分열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蔡<sup>28)</sup>는 “自最初之一細胞發生也 最初之一細胞曰 卵子細胞 亦曰人卵 生於母腹之卵巢 一經受孕 遂倍數分裂 一裂爲二 猶太極生兩儀也 二裂爲四 猶兩儀生四象 四裂爲八 猶四象生八卦也 八裂爲十六 十六裂爲三十二 猶八卦之錯綜變化 爲六十四也 愈裂愈多 凝成球形 稱曰胚球”라고 하여 인체발생에 대해, 卵子和 精子가 만나서 하나의 細胞가 되어서 수많은 分列을 하여 한 個體가 生成되는 것을 太極, 陰陽, 四象으로 分化되는 升降回轉이 반복되는 이론으로 서술하고 있다<sup>29)</sup>.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1년을 춘추동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춘추동의 사계절은 매년 반복하면서 만물의 성장수장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체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분열이 단 일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龔信 등이 제시한 발생학적 문헌은 단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 반복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즉, 五藏六腑의 발생을 五藏, 五府, 三焦로 나누어서 바라보면 五藏→五府→三焦 순서가 된다. 여기서 五藏과 五府는 같은 五行이므로 반복순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腎→脾→肝→肺→心에서 小腸→大腸→膽→胃→膀胱으로 발생한 다음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生生不息 如環無端하여 다시 膀胱에서 腎으로 반복된다고 가장하여 보면 태극운동과 같은 순환운동이 보인다. 또한 그렇게 보면 水에서 시작해서 火로 끝나는 순서가 역으로 火에서 시작해서 水로 다시 순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그림 1).

24)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438-441.

25) 김병수, 강정수. 宇宙生成과 胎兒發生의 相關關係에 對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9. (19). pp.85-103.

26) 金敬琢 譯. 新譯 老子. 서울. 玄岩新書. 1978. p.206.

27) 備旨具解 周易(繫辭傳), pp.1057-1058.

28) 蔡陸仙. 中國醫學匯海(九);生理類. 서울. 成輔社. pp.2-4.

29) 김병수, 강정수. 人體發生學에서의 二分法과 三分法. 東醫生理學會誌. 2000. (21). pp.4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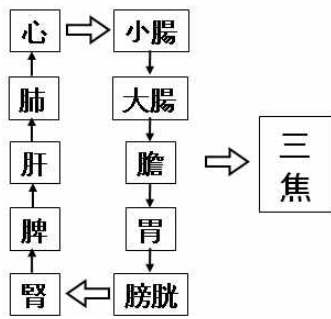


그림 1. 五藏五府 순환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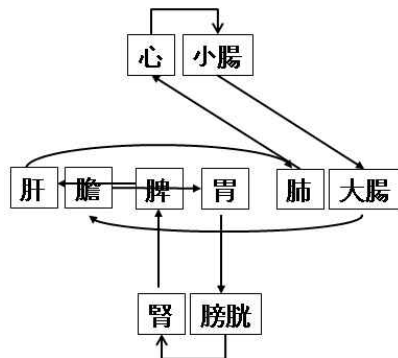


그림 2. 五藏五府發生 五方配屬

이와 같이 보면, 五藏이 생성되는 勝己順은 水에서 火로 상승하는 모습이며, 五府가 생성되는 己勝順은 火에서 水로 하강하는 모습이 된다. 즉 升降이 生生不息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勝己, 己勝順으로 순환하는 장부를 오방방위도에 배속시켜 간략히 정리해보면 水→土→火로 상승했다가 다시 火→土→水로 下降하는 것을 반복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는 생명이 한 번의 왕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승강분열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본 가설을 인정한다면, 기준 化氣五行인 己勝順에 따른 장부발생 역시 역대의 가들이 승강회전하는 양상에서 下降하는 단면(己勝)을 藏府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본다면 두 논지가 상호 모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 2) 升降의 表現

黃元御는 『四聖心源』 30)에서, 胎兒의 成長에서

대하여 “祖氣之內 含抱陰陽 陰陽之間 是謂中氣 中氣 土也 土分戊己 中氣左旋 則爲己土 中氣右轉 則爲戊土 戊土爲胃 己土爲脾 己土上行 陰升而化陽 陽升於左 則爲肝 升於上 則爲心 戊土下行 陽降而化陰 陰降於右 則爲肺 降於下 則爲腎 肝屬木而心屬火 肺屬金而腎屬水 是人之五行也”이라 하여 中氣를 기준으로 左旋右轉하여 승강회전작용 속에 胎兒의 五藏이 형성됨을 제시하였다.

升降運動의 반복이라는 가설 하에서 龔信의 說을 살펴보면, 腎藏에서 시작해서 五藏은 勝己順으로 상승 發生되고 心-小腸이 연결되면서 六府로 이어진다. 六府는 己勝順으로 하강 發生하여 다시 腎藏과 연결되어 순환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三焦를 완성해 간다. 三焦는 다시 經絡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며 奇經, 正經, 絡脈, 孫絡으로 차례로 진행되어 筋骨百骸를 생성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龔信의 說은 발생 3,4개월에 진행되므로 현재의 태아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龔信의 문헌은 승강의 순환이 일회로 그치거나 달별로 끊어지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해 나아가면서 점차 확장되면서 藏府에서 經絡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태아 생성에 관한 한의계의 가장 정교한 학설로 볼 수 있다.

본 가설로 보면, 5장5부 체계의 승강순환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三焦가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 三焦의 생성을 통해 5장6부로 완성되면서 경락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升降回轉에 따른 三焦의 發生(5장6부)

龔信의 견해에 대한 필자의 五藏五府의 반복승강운동 가설이 합당하다면 승강운동을 통해 三焦의 발생학적 논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三焦에 대한 역대 제가의 무수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발생학적인 견해는 龔信 이후의 아직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水升火降의

3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25-27.

上下極端에 대한 논의와 승강회전할 때 필요한 中心軸이 되는 土에 대해 설명한다.

### 1) 水火에 대한 重要性

자연계의 운동 중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자 한다면 상승의 극점과 하강의 극점이 있게 마련이다. 오행이론에서는 상승의 극점을 火라 하였고, 하강의 극점을 水라 하여 '水升火降'이 되어야 온전한 운동이 된다고 바라보았다.

虞搏은 『醫學正傳·或問』 31)에서 “有相火遊行於天地上下氣交之中故合爲五運六氣 人身之相火亦遊行於空子之內 上下肱膜之間 命名三焦 亦合五臟六腑”라 하여 자연계의 천지상하를 운동하는 相火에 견주어 인체에서 相火의 운동하는 공간을 三焦라 정의하였다. 우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춘하추동이나 오행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승강순환을 하고자 한다면 발산의 극단과 수렴의 극단이 존재해야 회전순환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 발생학에서 장부적인 心腎은 상승과 하강의 정점이 되는 것이다.

### 2) 土(中)에 대한 重要性

상승과 하강의 정점이 水火가 된다는 의미는 상승에서 하강하고, 하강에서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중심점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그 중심점을 五行에서는 土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水升火降이라는 명제는 그 이면에 土의 구심력 혹은 중심점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동원은 補土派의 이름에 걸맞게 『醫學發明』 32)에서 “三焦 有名無形 主持諸氣 以象三才之用. 故呼吸升降 水穀往來 皆待此以通達. 是以上焦在 心下 主內而不出. 中焦在胃中脘 主腐熟水穀. 下焦在 臍下 主分別清濁 出而不內. 統而論之 三者之用 本于 中焦. 中焦者 胃脘也. 天五之沖氣 陰陽清濁自此而分 十二經絡自此而始. 或不得其平 則 寒熱偏勝 虛實不 動 營衛澁滯 清濁不分 而生諸病. 故曰氣會三焦 手少

陽脈通于臍中. 臍中者 臣使之官 爲氣之海. 審此 則知三焦者 沖和之本.”이라 하여, 三焦를 분할해서 설명한 뒤 다시 統論으로 설명할 때 三焦의 쓰임은 中焦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2경락도 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여기에서도 三焦에서 土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회전운동은 구심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회전운동이 안정된 원운동을 만들려면 중심축의 이동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水火升降 운동이 안정화되려면 중궁의 土가 안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補土派에서 土를 중요시 한 점은 인체의 승강회전 운동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 水火土 運動

위와 같이 삼초의 회전승강운동은 상하극단과 중심점이 중요시되며, 중요시되는 부분을 통해 오행적으로 보면, 삼초의 운동은 水火土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李時珍은 易象을 취해 生命과 水火土의 관계를 논술한 바 있다<sup>33)</sup>. 그는 水火를 坎離卦로 설명하고 土는 坤과 戊己로 脾胃에 應한다고 했다. 李時珍이 수많은 사물 중 오직 水火土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易象에 비유한 것은 五行의 생극제화 운동의 중심점은 土만이 아니라 水 또는 火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또한 장<sup>35)</sup>은 '장상학에서 태극은 어느 곳인가'라는 명제에서 心太極, 脾胃太極, 命門太極說을 주장했다. 命門은 腦髓 또는 腎臟이라는 관점을 제시해서 결국 3太極은 上中下 火土水인 心脾腎에 해당된다. 이와 龔信의 說을 연결하면 인체의 5장5부의 승강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水火土의 삼태극이 형성되어 상중하로 구분되는 것이 三焦임을 알 수 있다.

역대 문헌에서 三焦는 천지인 三才로 많이 비유

31)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p.69-70.  
32) 張年順, 李東垣 醫學全書(醫學發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8.

33) 李浚川. 醫易學思想.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284-285.  
34) 김병수. 『東醫寶鑑·集例』에 근거한 동아시아 전통의학 역사의 삼원적 구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22(4). pp.746-753.  
35) 張其成 저.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서울. 청홍. 2008. pp.149-161.

되곤 했는데, 『中藏經』에서도 三焦를 “三元之氣”라고 표현하였고, 張介賓은 『類經附翼·三焦, 胞絡, 命門辨』에서 “夫三焦者 五藏六府之總司 …… 夫所謂三者 象三才也 際上極下之謂也 所謂焦者 相火類也”라 하여<sup>36)</sup>, 三焦는 五藏六府에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음과 三才를 취상한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발생학적 접근은 三焦에 대하여 六府적인 면이나 경락적인 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즉, 五藏五府가 발생하면서 상하 승강운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중하 火土水의 3개의 축이 발생하면서 三焦가 형성된다. 三焦는 六府의 하나이므로 이 상태를 5장6부의 단계라 할 수 있다. 龔信的 說에 의하면 비록 三焦가 6府의 하나이지만 奇經八脈, 12正經으로 발생해 나가는 시작이므로 三焦의 형성이 완료되는 이 시점부터 경락발생이 개시되는 것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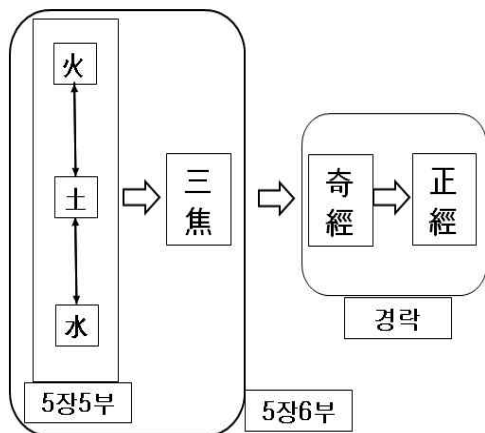


그림 3. 장부→삼초→경락

### 5. 三焦에 대한 發生學的 接近

역대 문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三焦를 설명했었는데, 그 결과 有形無形 논쟁, 府經絡 논쟁 등이 생겼다. 三焦에 대한 논의 중 최근에 잠정적인 결론이 난 것은 육부 중의 '三焦'와 상초 중초 하초의

신체를 삼등분한 '三焦'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내용으로 『內經』에서부터 혼재되어 기재되었다는 가설이다<sup>37)</sup>. 한방발생학<sup>38)</sup>적 관점에서 三焦를 보면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보다 쉽게 정리가 될 것이다.

六府 중의 하나라는 논의는 三焦가 여러 종류의 기를 升降시키고 水液을 通行시키는 작용을 하는 傳化之腑로서 命門의 기화능력(元氣之別使)을 발현하여 水穀精微를 통행시켜 肌肉을 따뜻하게 만들고, 通調水道하여 체내 水液代謝에 관여하는 것이라 하였다<sup>39)</sup>. 이는 三焦의 기화작용과 그로 인한 수액대사 작용으로써 인체 내부에 있는 5장5부를 장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인 체표경락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唐宗海의 三焦油膜說<sup>40)</sup>을 보면 장부와 장부의 피부이하를 연결하는 통로로 三焦를 설명하고 있다. 인체생성이 藏府에서 시작되어 三焦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經絡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龔信의 說에서 인체를 內外 관계로 보면, 內部的 藏府와 外部的 經絡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를 三焦로 설정한 것이다.

또 하나의 내용인 上焦, 中焦, 下焦의 의미는 인체를 上中下 삼등분을 하는 것인데, 후대의가에 의해 三才論 등과 결부되어 설명되었으며<sup>41)</sup> 溫病家들에 의해 辨證綱領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sup>42)</sup>. 다음은 역대 문헌을 六府의 三焦와 上中下の 三焦로 구

- 37)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902-913.  
38) 이러한 발생학에 대한 논의를 현대 서구의학의 발생학에 비견하여 한방발생학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39)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902-913.  
대한동의생리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일지사. 2004. pp.397-409.  
40) 당종해. 중서회통의경정의. 서울. 목과 토. 서울. 2000. pp.60-69.  
삼초는 사람의 유막으로 위장에서 수분이 흡수되어 유막을 통해 방광과 연결된다는 이론으로 6부의 소화흡수 작용이 미세혈관 장간막 지막 등의 소통에 의해 방광까지 연결된다는 이론인데, 삼초가 명문기화를 받고 태양경인 피부까지 개달하는 점을 보면 장부와 피부경락의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1) 大韓東醫生理學會篇.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p.380-384.  
42)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912.

36) 大韓東醫生理學會篇.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p.380-384.

분하여 간략히 정리한 뒤, 유무형 논쟁과 장부·경락 논쟁 등의 의미를 발생학적 논지로 해석하고자 했다.

### 1) 六府中 하나의 三焦

『難經』에서 「第三十一難」에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라 하였고<sup>43)</sup>, 「第三十八難」에는 “謂三焦也, 有原氣之別焉, 主持諸氣, 有名而無形, 其經屬手少陽, 此外府也.”라고 하였으며<sup>44)</sup>, 「第六十六難」에는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sup>45)</sup>라 하여 수곡의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氣化가 발견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三焦를 六府의 하나인 傳化之腑로 인식하여 水穀의 道路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漢代 華陀의 著書로 알려진 『中藏經』에서는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號曰中清之府 總領五藏六府 營衛經絡 內外左右上下之氣也”라 하여<sup>46)</sup>, 三焦氣화의 범위를 藏府에서 營衛經絡까지 확대하고 있다.

### 2) 上中下의 三焦

三焦를 上中下 셋으로 나눔에 대하여, 『靈樞營衛生會』에 “上焦出于胃上口, ……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 下焦者, 別迴腸, 注于膀胱, 而滲入焉.”라고 하여 최초로 구분하였는데, 아직 三焦에 장부를 배속하여 관찰하는 개념은 형성되지 않았다<sup>47)</sup>. 『難經第三十一難』<sup>48)</sup>에서 “上焦者, 在心下, 下膈, 在胃上口, 主納而不出, 其治在膻中, …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臍旁.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納”이라고 부위를 정리한 이후에 많은 문

헌에서 상초, 중초, 하초로 장부 전체를 포괄하였다. 특히, 陳言<sup>49)</sup>은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八三焦精腑辨正』에서 “上焦者 在膻中 內應心 中焦在中脘 內應脾 下焦在臍下節腎間動氣 分布人身 有上中下之異”라 하여 上中下에 心脾腎을 배속시켰고, 王好古는 『此事難知卷下問三焦有機』<sup>50)</sup>에서 “頭至心爲上焦 心至臍爲中焦 臍至足爲下焦”라 하여 三焦의 범위를 體幹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全身으로 확대해서 上焦를 手三焦, 下焦를 足三焦라 하고, 中焦는 命門心包絡과 합한다고 했다<sup>51)</sup>. 이런 관점들은 三焦를 上中下로 오장육부 또는 진신을 총괄한다는 견해이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三焦는 장부의 기능이 외부 경락과의 소통을 위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논지는 당연한 견해라 보인다. 특히 陳言의 수족을 포함하는 견해는 三焦의 범주가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虞搏은 『醫學正傳·或問』<sup>52)</sup>에서 “有相火遊行於天地上下氣交之中故合爲五運六氣 人身之相火亦遊行於空子之內 上下背膜之間 命名三焦 亦合五藏六腑”라 하여 천지사이의 공기와 같이 인체 공간을 모두 三焦라 지칭하고자 했다.

### 3) 三焦 論爭에 대한 發生學的 見解

삼초의 유무형과 장부·경락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며 현재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三焦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이며 통합적인 견해를 제시한 의가들이 있는데, 淸初의 張璐<sup>53)</sup>는 『眞宗三昧』에서 “夫所謂命門者. 即三焦真火之別名也. 以其職司腐熟之令. 故謂之焦. 經謂中精之府. 言其所主精氣也. 又云.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者. 言其氣化之象也.”이라 하여 六府중 하나의 三焦를 命門에 근원을 둔 火로 보고, 그 발현 현상을 상, 중,

43) 難經譯釋.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pp.120-122.  
 44) 難經譯釋.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pp.137-141.  
 45) 難經譯釋.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pp.218-219.  
 46) 大韓東醫生理學會篇.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p.380-384.  
 47) 大韓東醫生理學會篇. 東醫生理學. 서울. 일지사. 2004. pp.397-409.  
 상초-십폐, 중초-비위, 하초-간신으로 배속한 최초의 문헌은 孫思邈의 千金方으로 보인다.  
 48) 難經譯釋.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pp.137-141.

49)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98.  
 50) 王好古. 此事難知(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 2000. pp.175-176.  
 51) 大韓東醫生理學會篇. 東醫生理學. 서울. 일지사. 2004. p.406.  
 52)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p.69-70.  
 53) 張民廣 外 主編. 張璐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59.

하 삼초로 표현된다고 하여 兩者의 논의를 합치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시 三焦의 氣化가 형태가 없다는 논의는 가능하나 三焦 자체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有形이라 해서 그 증거로 膜理를 설명하였다.

논의를 들어가면 經絡인 手少陽三焦經은 과연 上,中,下 三焦로 나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手少陽三焦經은 무엇인가? 孫一奎<sup>54)</sup>는 陳言이 말한 腎臟 아래의 脂膜說을 인용하면서 手少陽三焦는 有形이고, 上中下 三焦는 無形이라고 주장하였다<sup>55)</sup>. 周學海는 『脈簡補義』<sup>56)</sup>에서 말하길, "『內經』에서 말하는 三焦에는 두 가지 意味가 있다. 하나는 三焦가 腹內의 上, 中, 下 세 部位를 指稱하는 말로 이는 手少陽三焦經脈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手少陽經脈으로 이는 三焦와 連結되어 三焦를 두루 運行하는 것인데 마치 心脈이 心에 屬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手少陽經脈이 三焦를 運行하나 실제로 세 개의 經脈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인데 그러면 三焦經脈을 上, 中, 下 三焦의 어느 部位에 該當한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命門의 元氣는 三焦를 走行하여 右腎을 통해서 出入한다. 比喩하자면 命門은 불이요, 三焦는 火焰이 지나는 곳이요, 右腎은 火焰이 發生하는 곳이다. 手少陽經脈이 右腎을 통해서 氣를 받았으나 이는 命門의 氣를 받은 것이므로 마땅히 手少陽經脈은 命門의 經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手少陽三焦經은 命門의 經脈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었다. 또 그는 三焦經脈은 실제로는 命門에서 그 氣를 받아 上, 中, 下 三焦를 運行하고 그 經脈이 上, 中, 下 三焦에 두루 퍼져있으므로 三焦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上中下 三焦와 腐熟水穀과 氣化作用을 갖는 三焦가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설명은 가능하나 과연 手少陽三焦經과 六府의 三焦,

그리고 上中下の 三焦는 어떻게 先後로 연결되는지는 아직도 논리적으로 막연하다. 그러나 上中下の 三焦도 水穀腐熟에 관련된 六府의 三焦도, 또한 經絡的 三焦도 결국 人體 내에서 運行 변화되는 현상을 관찰해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三焦를 이해하려면 각각의 다양한 의미의 三焦가 先後관계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학적 논지에서 본다면, 五藏五府에서 升降回轉하면서 火土水 운동으로 三焦가 발생한 것은 장부의 三焦이지 경락의 手少陽三焦經이 아니다. 즉, 발생적으로는 上中下 개념의 三焦가 命門의 힘으로 먼저 발생하여 五臟六腑를 만든 다음 經絡이 발생하면서 手少陽三焦經이 발현된 것이다.

생리적으로 氣화와 腐熟水穀에 대한 설명이 강조된 것은 후천적인 運行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보이며, 선천적인 발생학적 관점에서는 우선 上,中,下 三焦가 존재한 다음 手少陽三焦經이 발현하고, 후천적으로 출생 이후에 脾胃의 運化기능이 발현되면서 三焦의 腐熟水穀과 氣化作用이 발휘되는 순서로 인식해야 한다.

### III. 結論

모든 '존재'에는 '생성'과 '운동'이 있게 마련이다. 한의학에서 장부의 작동 또는 경락의 運行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즉, 존재의 '운동'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 있다면 '운동'에 앞서 존재의 의미 즉 '생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필요하다.

역대 한의학 문헌에서는 대체로 五藏의 발생은 己勝(相剋)순과 勝己(相侮)순의 剋 關係의 모습으로 설명되며, 비교적 후대의 龔信은 五藏은 勝己(相侮)순으로 六府는 己勝(상극)순으로 장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五藏 발생에서 제가들의 己勝順과 勝己順이 상호 모순처럼 보이고, 龔信의 藏과 府의 발생이 己勝과 勝己로 나눈 이유가 불분명하였다. 己勝과 勝己로 생성되는 장부발생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이를 해결하고자 반복 승강회전 모델을 제시하여, 상충되어 보이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였으

54) 韓學杰 外 主編. 孫一奎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藥出版社. 1999. pp.651-652.  
55)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일지사. 2004. p.407.  
56) 周學海. 周學海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3. pp.545-546.

며, 본 모델의 추론으로 三焦의 발생적 모습을 조명하였다.

五藏五府의 己勝勝己에 따른 승강회전 모델 관점에서 보면 발생학적으로 인체는 五藏五府의 반복된 승강회전으로 水火土 삼단계가 형성되면서 三焦가 발생되어 五臟六腑가 생성된다. 다시 三焦는 외부로 발현하면서 經絡이 발생된다. 三焦는 발생단계로 보면 藏府와 經絡의 중간 단계에 존재하며, 手少陽三焦經絡은 上中下의 三焦가 생성된 이후에 경락 발생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다.

향후 삼초에서 경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參考文獻

#### <논문>

1. 김병수, 강정수. 宇宙生成과 胎兒發生의 相關關係에 對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9. (19). pp.85-103.
2. 김병수, 강정수. 人體發生學에서의 二分法과 三分法. 東醫生理學會誌. 2000. (21). pp.45-54.
3. 김병수. 『東醫寶鑑·集例』에 근거한 동아시아 전통의학 역사의 삼원적 구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22(4). pp.746-753.

#### <단행본>

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pp.108-112.
2. 章潢. 圖書集成醫部全錄(五).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58-59.
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9, 168.
4.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438-441.
5. 宋林阜. 四明宋氏女科秘書(婦人良方大全 뒤 附錄).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pp.8-11.
6.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
7. 劉昉.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 20-51.

8. 宋林阜. 四明宋氏女科秘書(婦人良方大全 뒤 附錄).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1975. pp.8-11.
9. 龔信 纂輯. 古今醫鑑(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33.
10.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史. 1999. p.1659.
11. 金敬琢 譯. 新譯 老子. 서울. 玄岩新書. 1978. p.206.
12. 備旨具解 周易(繫辭傳), pp.1057-1058.
13. 蔡陸仙. 中國醫學匯海(九);生理類. 서울. 成輔社. pp.2-4.
1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25-27.
15.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p.69-70.
16. 張年順. 李東垣 醫學全書(醫學發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8.
17. 李浚川. 醫易學思想.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284-285.
18. 張其成 著. 韓의학의 원류를 찾다. 서울. 청홍. 2008. pp.149-161.
19. 大韓東醫生理學會篇.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p.380-384.
20.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902-913.
21. 당중해. 중서회통의경정의. 서울. 목과 토. 서울. 2000. pp.60-69.
22. 대한동의생리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일중사. 2004. pp.397-409.
23. 難經譯釋.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pp.120-122.
2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98.
25. 王好古. 此事難知(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 2000. pp.175-176.
26.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p.69-70.
27. 張民廣 外 主編. 張璠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59.

28. 韓學杰 外 主編. 孫一奎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藥出版社. 1999. pp.651-652.
29. 周學海. 周學海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3. pp.545-546.